

# “더는 버틸 수 없어...수십 년 해오던 장사 접었습니다”

### 광주·전남 올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495억원 ‘역대 최대’ 코로나 장기화에 이자 부담 가중...소상공인 등 폐업 속출

“요즘 같아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노후 대비가 중요하지만 당장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울걸요.”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지난 수십 년간 해오던 장사를 접어야 할 지 고민이 크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시작된 불경기가 3년이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등 지출을 줄이면서 가게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말이면 예약 손님으로 가득해야 할 식당이 한산하다”며 “그동안 가게 운영이 어려워 대출을 끌어다 막았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굉장히 부담

스러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손님을 줄고 대출이자 등 고정비 지출은 많아 매달 적자를 보거나 손해를 면하는 정도다”며 “폐업을 하고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한 노란우산 공제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아볼까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에 대비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원자재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여파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을 택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거 공제금을 받아간 것

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 속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광주 276억원, 전남 219억원 등 총 495억원에 달했다. 이는 노란우산이 출범한 2007년 이래 최대치다.  
광주지역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11월 누계 기준 코로나가 촉발한 2020년 178억원에서 지난해 257억원으로 44.38%(79억원) 급증했다. 올해는 276억원을 넘어서면서 2년 전보다 무려 55.05%(9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2020년 137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42.33%(58억원)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19억원으로 2년 만에 59.85%(82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퇴직금(공제부

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에 대비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가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월납 또는 분기납)하고, 폐업, 사망, 퇴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본인이 폐업이나 퇴직을 대비해 적립하는 ‘저축성 목돈’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돈줄’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폐업공제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여전히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현상으로 가뜩이나 험겨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빚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불안 요소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이 급증한 것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게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도 고금리 리스크는 더 심화하고 누적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자보전과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레미콘 업계 “밀지는 장사...단가 최소 20% 올려야”

### 광주·전남 업체 “원자재값 폭등에도 단가 반영 안돼 손실 ‘눈덩이’”

광주·전남지역 중소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과 운반비 가격 상승에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납품을 하면 적자를 보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지역 레미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 화순, 곡성, 영광, 함평 등 광주·전남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의 가격 인상 통보를 비롯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레미콘의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의 가격을 올해 4월에 인상한 것에 이어 지난 달에도 15.4% 추가 인상하는 등 한해 두 차례나 가격을 올렸다.  
문제는 시멘트 업체가 가격을 인상해도 레미콘업

계는 건설업체가 원가 인상을 단가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밀지는 장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인상 내용을 보면 시멘트는 현재 1만4000원이 올랐지만, 레미콘업체가 반영 받은 금액은 5110원으로, 모래와 자갈은 모두 3000원씩 올랐음에도 각각 1899원, 1800원 밖에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운반비도 7000원 올랐지만 1166원만, 용차비(일대)는 8만원이나 올랐음에도 1333원만 반영됐다.  
지역 레미콘업체는 최소 20% 이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가격 인상 요인별 비중은 시멘트 5.9%, 골재(모래·자갈) 4.3%, 운반비 1.3%, 용차비 1.5%, 혼화제 0.5%, 현장요구배합 2.3%, 고정비 4.0% 등 22% 상당이다.

레미콘 업체의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3% 수준을 밀고 있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의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자칫 ‘몰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레미콘업체에서는 납품사인 건설업체가 원가 인상을 단가에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납품 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레미콘 업체 대표는 “시멘트 값은 이미 올랐는데 건설사에서 레미콘 단가 인상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며 “원재료 공급업체와 원정인 건설사 사이에 끼여 영세한 레미콘 업체만 압사하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달청과 계약된 공급 레미콘 가격은 민수설계라 가격을 올려야만 조달단가에 반영해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효성 “베트남 미래 산업에 지속 투자하겠다”

### 조현준 회장, 응우옌 쑤언 폭 국가주식 4년 만에 만나 전 산업 분야 친환경 스마트 전초기지 육성 등 협력 강화

효성 조현준 회장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국가주석을 4년 만에 다시 만나 베트남의 미래 산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폭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과 폭 주석은 2016년과 2018년 폭 주석이 총리 시절 베트남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효성 측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부회장, 효성TNS 손현식 대표이사, 효성티앤씨 김치형 대표이사 등이 참석, 베트남 측에서는 폭 주석 외에 응우옌 쑤 응 투자기획부장관, 응우옌 흥디엔 산업부장관, 부이 타이 썬 외교부장관 등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함께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폭 주석에게 “효성이 글로벌 팬데믹과 세계경제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확보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 주석은 효성이 베트남 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친환경·바이오·소재·신기술 분야의 추가 투자를 응원하고, 베트남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세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2007년 베트남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약 6곳의 생산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베트남 외자기업 투자액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약 1만여명의 현지 임직원을 채용하며 베트남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약 34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빛나는 연말 선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6일 점포 2층 골든투 매장에서 ‘홀리데이 스페셜 아이템’ 행사(~25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연말 선물용 목걸이, 귀고리, 팔찌 등은 20% 할인 판매하고 다이아몬드 제품은 10% 저렴하게 내놓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삼성전자 다시 ‘5만전자’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  
코스피가 6일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가량 하락해 2400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16포인트(1.08%) 내린 2393.1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 2400선을 밀린 것은 지난달 8일(2399.04)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60억원어치, 307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3796억원을 순매수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1.82% 떨어진 5만9200원에 마치며 한 달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와 위안화 약세 반전 영향에 1300원대로 다시 상승했다. 종가는 전날보다 26.2원 오른 1318.8원이었다.  
코스피의 부진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종 금리를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3.88포인트(1.89%) 내린 719.44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95억원어치, 기관이 79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1606억원을 홀로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이웃을 위한 손길 광주은행 송죽동 은행장과 인입 행원 30여 명은 지난 5일 남구 입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 2000포기를 직접 담가 무동육아원 등 지역 보육시설과 복지관 20여 곳에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 금호타이어 ‘ESG 평가’ 우수

### 에코바디스 ‘실버 메달’ 획득...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각각 실버(Silver) 메달, 종합 B+ 등급을 획득하는 등 올해 대외 ESG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서 설립돼 전 세계 175개국 10만 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ESG 평가 플랫폼으로 실버 메달은 ESG평가 결과 상위 25% 이상의 기업에게만 수여된다.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10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평가를 진행했으며, 금호타이어는 각각 B, A, B 등급을 받아 종합 B+ 등급을 획득했다.  
금호타이어는 ▲2045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 및 SBTi 가입 ▲Scope 3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인권교육,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방식에 관한 개선 ▲협력사 ESG관리 및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인정받아 에코바디스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일택 대표이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ESG경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7월 Scope 3를 포함한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인 SBTi에 가입했다. 2년 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을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타이어 개발 및 지속가능한 원재료 사용확대 ▲협력사 탄소배출감축 지원 ▲폐타이어 관리 등 공급망 내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초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에서 실시한 ESG평가에서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MCS 첫 사장 공모...12일까지 접수

한전MCS(㈜) 첫 사장 공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서비스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  
한전MCS는 홈페이지에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한전MCS는 권기보 초대 사장의 3년 임기를 끝으로 첫 사장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한전MCS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공모 일정 등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지원자 가운데 뽑은 최종 후보자는 한국전력 주주총회를 통해 인가를 받는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할 수 있다.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한전MCS 사장 연봉은 2억2000만원가량이었다. 한전MCS 현원은 약 4200명으로, 나주 본사에는 80여 명이 있다. /박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3.16(-26.16)
↓ 코스닥	719.44(-13.88)
↑ 금리(국고채 3년)	3.633(+0.024)
↑ 환율(USD)	1318.80(+26.20)